

##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 바란다

李 敦 熙

(서울大 師範大 學長)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금년에 창립 5주년을 맞게 된다. 이 協議會는 1982년 4월 2일에 당시 97개의 4년제 대학들을 회원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여 이미 대중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급격한 대학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종래에 없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노출되었으며, 그만큼 질적인 관리와 균형적인 발전이 대학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던 때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양적인 팽창은 대학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文敎部가 종래에 잠악해 왔던 중앙통제적 기능에 대한 힘의 한계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의 수행을 文敎部가 도맡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대학교육의 규모는 대형화되었으며 또한 구조적·기능적 복잡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100여 개에 달하는 4년제 대학들만 하더라도 각기의 개성을 성숙시키면서 동시에 공·사립간이나 지역간이나 부문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의 질적 관리를 위한 체제의 개발이나 대학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조정의 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대학 사회 그 자체 내부에 창설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시의에 크게 부합되는 일이었으며, 우리 대학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大學教育協議會는 회원대학의 수에 있어서 114개에 이르게 되었고, 조직과 사업이 대학 사회에 본격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었으며, 그 업적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협의회의 필요에 대한 대학 사회의 인식도 높아 가고 있음은 경하해 마지 않는 일이다.

大學教育協議會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1) 회원대학간의 공동 문제의 해결이나 발전 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의와 조정, 2) 회원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에 걸친 체제와 운영의 질적

---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3) 회원대학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중재, 4)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종래의 文敎部가 하던 대학 행정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업무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회원대학들이 자기 수행하는 일을 통합함으로써 일의 경제성을 기할 수도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능률성에 協議會가 설립되어 존속하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大學敎育協議會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기술되든지 간에, 그것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근거는 각기의 회원대학 혹은 대학 사회 전체가 지녀야 할 '自律性'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學問의 殿堂으로서 진리를 추구하고 가치를 창조하면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전문적 제도이며 또한 조직이다. 이러한 제도 혹은 조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만큼, 眞理에 접근하는 기회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價値를 풍요로이 창조하는 조건을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자율성을 지닌 대학은 그 자체의 個性에 의해서 진리에 접근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대열에 서게 되며, 그 개성과 더불어 그 대열에서의 역할을 분담받게 된다.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일에 때때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劃一主義와 放任主義이다. 전자는 흔히 대학과 대학 사회를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경직된 官僚主義가 지배하는 감독 관청의 행태에서 볼 수 있는 일이며, 후자는 모든 외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그리고 모든 평가나 비판의 구애 없이 자기의 세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배타적 獨善主義에 지배된 대학 경영자들의 사고 방식에서 볼 수 있다. 물론 누구도 극단적인 획일주의와 극단적인 방임주의를 취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 사회는 그러한 劃一主義的 경직성의 정도와 放任主義的 무책임성의 정도만큼 항상 발전의 저해 요인을 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하나이다. 국립이나 사립이나, 대도시의 대학이나 전원 도시의 대학이나, 共學이나 女子大學이나간에 대학마다의 조직 형태, 운영의 방식, 학생의 선발과 교육의 프로그램, 교수의 신분상의 조건 등에 있어서 이렇다고 할 다른 종류의 대학이 따로 없다. 이러한 劃一性은 대학 행정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여 온 결과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독자적 방법이나,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생각이 생산되거나 교환되는 데에는 항상 고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

---

있어서 거의 아무런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成績, 學位의 기준에 있어서 이 대학의 것과 저 대학의 것은 가릴 것 없이 제도적으로 동일한 성적 혹은 학위이지만 그 사이에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대학 사회는 교육의 결과나 학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공유하지 않은 채 각기 거의 자의적으로 결정한 기준에 의하여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운영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혹은 대학 사회가 자율성을 향유한다는 것은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개성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풍토를 유지하면서도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 교육이나 연구 등의 과정 혹은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객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과 대학 사회가 이러한 의미의 자율성을 실현하고 또한 수호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진리를 말하고 가치를 생산하는 문명된 삶의 심장으로서의 사회적 권위와 위세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하여는 대학간에 적어도 정보의 교환, 상호의 평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조정 체제를 필요로 한다.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우리의 개별 대학 혹은 대학 사회 전체가 이러한 자율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고 협의하며, 의사나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시키며, 자율성의 보호를 위하여 단합하고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기구로서 모습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大學教育協議會의 기능과 역할이 이와 같이 아무리 막중하다고 하더라도 대학 혹은 대학 사회의 발전을 위한 仲裁者 혹은 調停者이지 결코 主導者 혹은 統制者일 수는 없다. 우리의 大學教育協議會가 대내적으로 조정력을 발휘하고, 대외적으로 대학 사회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거나 보호하는 일에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거리에 있다.

\*